

1980년대 이후 고창농악 연행주체에 관한 연구

권은영(전북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주체의 변화 |
| 2. 1980년대 이전 고창지역 농악의 연행주체 | 4. 연행주체 변화에 따른 효과와 의미 |
| 3. 1980년대 이후 ‘고창농악’의 성립과 연행 | 5. 맺음말 |

1. 머리말

이 글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공연 양식의 하나로서, 오랜 역사성과 문화적 의미를 가진 농악이 왜 1980년대 이후에서야 연구의 중심 논제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그전까지는 조선시대 문헌¹⁾이나 일제강점기 민속조사 보고서에 농악에 대한 파편적인 기록이 남아있었을 뿐이며, 1965년 「농악 12차」가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서야 비로소 농악은 체계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1980년대에 이르러 농악은 민속학, 음악학, 무용학, 사회학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 주제의 하나가 되었다.

1) 조선시대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농악에 관한 기록은 김정현의 「호남좌도농악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 논문, 2008. 23-34면에 잘 정리되어 있다.

1980년대에 이보형과 정병호는 문화재 전문위원으로서 농악에 관한 무형 문화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폭넓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조사보고서들은 후속 연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1차 자료가 되어 농악 연구의 토대 역할을 하였다. 이런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보형은 현장에서 경험한 풍부한 사례들을 예시하면서 농악의 용어, 기능과 형식, 기, 복색, 음악 등의 구성요소 등을 논의함으로써 농악의 연구를 다각화하고 확장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인 정병호는 농악의 개념, 명칭, 유형, 유래와 변천과정 등을 기술하고 각 지역 대표 농악들의 공연형식과 절차 등을 정리한 농악 개론서를 발간함으로써 농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농악의 지역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 두 연구자들은²⁾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는 신분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는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 있어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농악을 종합하고 분류하여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농악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1980년대에는 국가주의적인 사업의 대척점에 있던 ‘민중문화운동’의 차원에서 ‘풍물굿운동’이 전개되면서 농악에 대한 논의들이 양적으로 팽창하였다. 1970년대 탈춤부흥운동이 성행했던 때부터 탈춤의 반주 음악으로서 대학가에 퍼지게 되었던 농악은 1980년대에는 탈춤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흐름을 갖게 되었다. 탈춤을 위시로 한 민속예술에 대한 담론의 한 갈래로서 농악에 관한 논의가 생산되었고, 이는 학문적 영역을 넘어서 대학가나 농촌·노동 현장에서의 실천적 운동과 더불어 대중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풍물굿운동’이라는 흐름을 형성한 것이었다.³⁾ 이런 입장에서 있는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은 집단정체성 확인과 집단의 결속력 강화, 공동노동의 놀이성 강화라는 농악의 기능을 주목하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농악을 ‘풍물굿’이라 명명하면서 농악의 집단성, 민중성, 공동체성을 현대인의 삶 속에서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농악의 연구와 연행의 양적·질적 확산에 기여한 문화

2) 이보형과 정병호의 연구에 대해서는 권은영, 「20세기 풍물굿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 논문, 2008, 4-5면을 참조.

3) 위의 논문, 6면.

적 사건으로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사물놀이의 출현과 활약을 들 수 있다. 1978년 전통문화의 재조명이라는 차원에서 시도되었던 사물놀이는 1980년대 이후 수많은 공연적·교육적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마스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파·수용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공연예술로서 인식되었다. 사물놀이는 비언어적 타악 퍼포먼스라는 공연 특성상 외국인들도 쉽게 배우고 감상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물놀이를 배우고 즐기는 사람들이 다수 생겨났고, 이들을 가리키는 말인 ‘사물노리안(Samulnorian)’이란 신조어가 대영백과사전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사물놀이가 거둔 이런 성과는 사물놀이를 배태한 농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이후 농악과 관련된 문화적 실천의 진전을 가져왔다.⁴⁾

이처럼 1980년대는 국가주의적 입장에서의 조사와 연구, 민중문화운동 차원에서의 ‘풍물굿운동’의 실천, 사물놀이의 확산과 대중적 수용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과 방향성을 가진 실천들이 농악의 공연, 연구, 교육면에서 혼재되어 전개되었다.

이 지점에서 다시 글의 시발점이 되었던 질문을 떠올려 보자면, 그것은 “오랜 세월 침묵되어 왔던 농악에 대한 발언들이 어째서 1980년대 이후야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대 지식의 형성’과 ‘민속의 발견과 재구성’, 그리고 1980년대의 역사적인 맥락이라는 더 큰 범위에서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이 글의 지면과 필자의 역량에 넘치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이 글에서는 농악의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그 답에 대한 단초를 얻고자 한다.

대학 동아리에서 농악에 대해 처음 알게 된 필자는 이후 주로 전북지역의 농악 현장을 경험하고 조사 연구해왔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북지역 농악보존회의 핵심인물들 중에는 필자처럼 대학 동아리를 통해 처음 농악을 감상하고 배웠으며, 나중에 전공을 바꾸어 전문연행자가 된 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례를 목격하면서 필자는 1980년대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풍물굿운동’이 농악 연행주체의 구성에 변화를 가

4) 사물놀이와 농악과의 관계, 그리고 사물놀이의 문화사적인 위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지면을 달리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져왔고, 그것이 농악 연구의 판도를 바꾸는 데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인다.

농악은 1980년대 이전까지 농민, 어민, 세습무계 재인, 근대 이후의 포장걸림이나 여성농악단의 전문예인들에 의해 주로 공연되었다. 이때까지의 농악의 연행주체들은 제도적인 교육 체계에서 소외받은 이들로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활동의 의미를 문자로서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연행주체들은 행동의 모방이나 구술을 통해 농악의 공연지식을 전승하였고, 저장성이 약한 농악의 매체적 특성과 문자화된 텍스트의 부재는 농악 연구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1960년대에 이르러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가 작성됨으로써 농악은 비로소 체계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들은 연행주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조사자가 연행주체들의 상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의 조사자들은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이들로서 관청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고, 무형문화재 지정에도 관여한 이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연구주체와 연행주체간의 관계가 대등할 수가 없었으며, 연행주체들이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사내용이 구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1980년대부터 풍물굿운동의 확산과 사물놀이의 대중적인 전파로 인해 예비지식인에 해당하는 대학생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농악의 새로운 전승주체로 떠올랐다. 이들은 무대예술로서의 농악, 연행 실력의 우열을 가리는 경연대회나 ‘국풍81’로 대표되는 국가 홍보수단으로서의 농악과 자신들의 실천을 차별화하였다. 그리고 삶의 개혁 기제로서 작동될 수 있는 농악의 특성들에 주목하고 그것을 현실의 삶에 접목하여 실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농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농악 자체의 미적인 예술성에 주목하는 ‘대학생 연행주체⁵⁾가 나타났다. 이들은 원래의 전공을 포기하거나 바꾸어 전문연행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지역의 농악보존회를 거점으로 활동하였으며 트레이닝과 공연을 통해 농악을 신체적으로

5) 이 글에서는 논지 전개 편의를 위하여, “민중문화운동의 영향 하에 있던 ‘탈패’, ‘민요패’, ‘풍물패’ 등의 대학 동아리 출신으로서, 전문적인 농악연행자가 된 이들”을 ‘대학생 연행주체’라는 용어로서 부르코자 한다.

탐구하였다. 또한 영세한 보존회의 사정상 행정 업무까지를 맡아 처리하였고, 동시에 문헌 및 면담 조사를 통해 농악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병행하기도 하였다. 즉, 대학생 연행주체⁶⁾들은 농악을 연행할 뿐 아니라 내부자의 관점에서 농악의 내용 및 의미와 가치를 기술하여 여러 지역의 개별 농악들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농악 연구의 양적인 확산을 가져왔다. 또한 외부자의 시각에서는 몽롱그려져 있던 각 지역 농악의 개별적 특성들을 명료하게 포착함으로써 농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대학생 연행주체’들의 활동 내용과 의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행주체들과 ‘대학생 연행주체’들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세대전승을 이뤄냈다고 생각되는 고창농악을 중심으로 하여 ‘대학생 연행주체’들이 농악의 전승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들의 실천이 어떤 의미를 생산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1980년대 이전 고창지역 농악의 연행주체

고창농악은 흔히 ‘영무장농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영무장’이란 영광과 무장지역을 합하여 부르는 명칭인데, 『고창농악』에서 조선 영조 1750년의 『해동지도』에 고창, 무장, 범성, 함평, 영광, 장성 등을 표시⁶⁾한 것처럼 그 일대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 개편 후 전라북도과 전라남도, 그리고 고창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으로 나뉘었지만 전통적으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권이였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악은 일반적으로 농민들의 문화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호남을 좌우도로 나눌 때 우도지역에 해당하는 영무장 지역에서 활동한 농악의 명인 중에는 세습 무계 출신이 많았다. 이런 사실은 현재의 고창농악을 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상쇠 황규언 옹과 그 부인, 소고 명인 유만중 옹과의 면담 자료를 잠깐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6) 고창농악보존회, 『고창농악』, 나무한그루, 2009, 15면.

황(규언) : 우리 애렸을 때고, 같이 친 사람은 박성근이로 두옥이, 성락이, 김상구 고리.

(중략)

황 : 박성근이는 양인이고, 신두옥이도 동간이고.

김(영희) : 당골, 한마디로.

이(명훈) : 당골은 김상구씨가 당골이었는데.

유(만중) : 거기도 당골이여.

황규언 사모님 : 만식이도 기고, 양술이도 기고.

유 : 성락이도 당골이여.⁷⁾

위의 자료에서 언급한 신두옥, 성락이, 만식이, 양술이는 각각 신두억, 김성락, 김만식, 김양술 등을 일컫는데 이들은 모두 세습무계 출신의 예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두억은 “신영찬, 박성근과 더불어 고창지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풍물굿을 연행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고창동북부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신씨 무계의 사람으로 “활동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창지역 대부분의 마을에서 그의 활동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다.⁸⁾ “고창과 영광 지역의 농악 명인들 중에 김만식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고창과 영광 일대에서 가장 이름난 설장구”였던 김만식 또한 무계 출신으로, 법성포 김씨 무계의 김학준에게 장구를 배웠다. 그는 말년에 고창군 성송면 양사에 기거하면서 황규언, 정기환 등에게 장구가락을 전수하였다. 쇠와 장구 모두에 능했던 김성락은 김학준의 아들이었고, 고깔소고의 명인 김양술은 김만식의 동생으로 모두 무계 출신이었다. 또한 김상구는 “고창지역 세습무계 풍물굿 명인들 중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무업과 풍물굿을 연행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⁹⁾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에 속했던 세습무계의 예인들은 신분제가 철폐되자 무업보다는 판소리, 기악 등을 하며 예인의 삶을 살았다. 정읍과 고창 등 소위 호남우도지역에서는 위의 경우에서처럼 세습무계 출신으로서 농악 연행자로 활동했던 이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세습무계 출신들이 농

7) 『고창의 마을굿1』, 고창문화원, 2000, 33면.

8) 고창농악보존회, 앞의 책, 62면.

9) 고창농악보존회, 앞의 책, 60면.

민 출신들보다 먼저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서 농약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부터는 호남좌우도지역 모두에서 양인 출신의 전문적인 농약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전문적인 농약인들은 일반 임노동자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수입이 나왔기 때문에 양인 중에서도 기량이 뛰어난 사람은 연행자를 하시는 세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농약인으로서 활동하였다.¹⁰⁾ 고창지역에서는 박성근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무계 출신의 농약인은 기량과 별개로 신분 때문에 상쇠나 수장고에 서지 못하기도 했다는 구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에 농약인들 사이에서도 신분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궁괘 단위로 연행을 할 경우 박성근이 상쇠를 하고 그 뒤에서 신두억, 신영찬이 쇠를 쳤다. 그리고 김만식은 장구쟁이로서 상쇠 박성근과 단 짝이 되어 모든 공간에서 함께 연행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농약은 양인과 무계 출신이 스스럼없이 함께 팀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창지역은 특히 물산이 풍부하여 경제적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이들이 연행을 벌이기에 좋았다. 이런 사실은 다음의 제보를 통해 알 수 있다.

- (1) 그때 하룻밤 치는데, 저 거시기가 침으로 허면 상쇠 거시기까지는 1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고. 그 밑에 그래야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 또 배울라고 상쇠 쇠하고, 쇠 쇠, 들섯까지는 거석하느니 끝쇠는 안 사오는 수도 있는데, 장구하고, 장구 하나하나 하고잉. 쟁하고는 꼭 사와야허.(중략) [근데 이 동네 사람들도 굶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꼭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굶을까요?] 기분 좋게 할라고 그러지. 그날 정월대보름인데 기분 좋게 할라고 그러지. 그것도 용대한테 뺏겨요. 천상 뺏겨. 용대에서 치고 와야 쳐. 그 사람들을 못 끌어와. 돈이 없으게 못 끌어오는 거여!¹¹⁾
- (2) 굶을 한번씩 친다고 하면, 소문 나갔고 오지마라 해도 이 근동 그냥 공음 상하 해리 사람들이 와갔고 진을 쳐버린다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준다고. 옛날에는 왜냐? 먹을 것은 없고 많은 손님이 막 달라 들어갔고 가도 안하고 그러면 어쩔 것이여!¹²⁾
- (3) 서른네 집이 있는 군내 부잣집들이 그런 눈이 보이지 않는 경합을 하고

10) 권은영, 앞의 논문, 70면 참조.

11) 고창농약보존회, 앞의 책, 23-24면.

12) 위의 책, 25면.

그랬단 말여. 소작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풍물패를 데려다 했는데 그렇게 기가 백히게 잘 했어. (중략) 부잣집 생일이나 회갑이나 마님을 다 적어 가지고 다녀. 그것에 따라서 코스가 정해지고 일정이 정해져. 그래서 어디를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대로.¹³⁾

정월대보름, 부잣집의 생일이나 회갑과 같은 마을의 주요 행사 때마다 농악패들이 섭외되었다. 이들은 탁월한 기량으로 농악판을 이끄는 데, 농민들은 이들과 관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의 예능을 즐길 뿐 아니라 그것을 행위 전승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 이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으면 “만식을 끝어다가 그 동네에서 살릴 때는 뭇 가락을 익힐려고 그랬을 것인디”¹⁴⁾와 같은 구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 농악인을 데려다가 마을에서 살게 하면서 마을의 농악을 갈고 닦기도 하였다.

그런데 (1)의 “그 사람들을 못 끌어와. 돈이 없으게 못 끌어오는 거여.”나 (2)의 인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농악인을 불러 오는 일은 상당한 경제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3)과 같이, 소작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인심을 얻기 위해 부잣집에서는 전문 농악인들을 불러다가 연행하게 하였다. 이런 점을 볼 때 실제 농사를 짓고 농악을 연행·향유했던 농민뿐 아니라 경제권을 장악하면서 농민들과 무계 출신의 농악인을 후원했던 지주들이 농악의 전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인물로 고창에서는 유학자이자 지주로서 농악을 좋아하면서 농악인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정방규와 같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¹⁵⁾

해방 후에는 농악경연대회가 빈번하게 열렸고 이런 대회에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출전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영무장농악도 전라북도과 전라남도의 두 팀으로 나뉘게 되었다. 전북지역의 명인들은 박성근을 중심으로, 전남지역의 명인들은 최화집을 중심으로 팀이 결성되었고¹⁶⁾ 이후 박성근패의 농악은 영무장농악의 전라북도 계통으로 차차 인식되었다고 한다.

13) 위의 책, 26-27면.

14) 위의 책, 25면.

15) 위의 책, 28-36면 참조.

16) 위의 책, 85면.

이처럼 고창지역의 농악은 농민집단의 문화적 바탕과 경제적 후원을 토대로 하였고, 여기에 세습무계 예인의 공연지식이 예능적인 기량을 이끌어왔다. 그렇게 하여 무계 출신과 양인 출신의 농악인을 풍부하게 배출하면서 고창의 농악이 전승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이전까지는 농민, 세습무계 예인, 농민 출신 예인 등이 고창 지역 농악의 연행주체였다고 할 수 있겠다.

3. 1980년대 이후 ‘고창농악’의 성립과 연행주체의 변화

3.1. ‘고창농악단’의 결성과 ‘고창농악’의 발굴

1980년대에는 고창 지역의 농악 연행 주체 면에서 큰 변화를 포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때에 고창 각 지역에서 살고 있던 농악인들을 모아 ‘고창농악단’을 결성함으로써 이들의 농악이 ‘고창농악’이라는 이름으로 결집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이전까지 고창 지역의 농악은 박성근패, 김만식패와 같은 전문 연행자 중심의 결궁과 농악경연대회용 연행, 그리고 각 마을의 마을굿으로서 존재해 왔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고창농악단’이 결성됨으로 해서 ‘고창농악’이 구성되었다.

1985년 고창에서 농악단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고창읍의 오거리 당산제와 관련된다. 당시 고창읍 오거리 당산제를 지내는데 정읍 사람들을 데려다가 풍물굿을 연행하게 하고 있었다. 고창의 당산제를 거행하는데 풍물굿을 연행하는 치배들이 정읍 사람들인 것에 걱정을 하던 군수가 문화원장과 상의한 끝에 농악단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세습무계 명인들이 지역을 이탈하거나 타계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주축으로 모일 수 없었다. 따라서 문화원장의 지휘 하에 고창군의 전역에서 풍물굿을 연행할 줄 아는 사람을 집합시켰다. 이때 모인 사람이 500여 명에 달했다. (중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내체육관에 모아놓고 각각 실력을 점검하여 23명의 정예 멤버를 선정했다. 당시 심사위원장은 이기화 문화원장이 맡았다.

선정된 23명은 문화원장의 주도하에 4년 동안 집단 연습을 했다. 아산면 용장마을의 제실과 상하면 장호마을에서 합숙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게 된 것이다. 이때 상쇠는 황규언 선생이 맡았다. 황규언 선생은 과거 김만식 선생으로부터 장구가락을 전수받고, 박성근 선생으로부터 쇠가락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결성된 것이 고창문화원 산하의 <고창농악대>다. 17)

위 글로 보아 ‘고창농악단’은 오거리당산제에 수반되는 농악을 연행하기 위해 모집되었다. 1968년 이두현은 오거리당산제에 대하여 “당산제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사들이 해방과 더불어 또는 육이오사변 후 각각 없어지고 개인으로 뜻있는 사람들이 약식 제물로 정성을 드릴 뿐이며 중거리와 하거리는 아직 그곳 이장과 반장이 화주가 되어 해마다 약식제의를 올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그 당시 돌을 재료로 하는 갓당산이나 자연석 형태로 되어 있는 오거리당산은 유형문화유산으로서 보존되고 있었으나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당산제는 유교식의 제의만 약식으로 남아 있을 뿐 농악이나 민속놀이 등이 전부 끊긴 상태였던 것이다.

이 글이 발표된 다음 해인 1969년에 오거리당산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이 이후 고창문화원과 고창번영회 등 향토문화의 지식인들은 고로들의 증언을 모으고 자신들의 기억을 되살려 오거리당산제의 제의 절차를 재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노력 끝에 1981년에는 ‘오거리당산 보존회’가 결성되어 정월대보름에 마을 연합굿의 형태로 오거리당산제가 치러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맥이 끊겼던 오거리당산제는 복원되는 과정에서 과거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당산제의 형식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었다.¹⁸⁾ 그리고 이런 맥락 하에서 오거리당산제를 치르기 위해 ‘고창농악단’이 만들어졌다.

이때 구현된 ‘고창농악’은 성송면 양사동의 상쇠였던 황규언의 판제를 중심

17) 위의 책, 86-87면.

18) 이에 대해서는 권은영, 「고창오거리당산제의 복원 과정과 민속학적 가치」, 『국어문학』 54집, 국어문학회, 2013을 참조.

으로 하고 거기에 ‘고창농악단’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형태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오거리당산제 복원의 주요인물이자 ‘고창농악단’의 선발과 연습에 깊이 간여한 이기화 고창문화원장의 해석이 덧대어짐으로써 영무장농악에 뿌리를 둔 ‘고창농악’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선정된 23명은 문화원장의 주도하에 4년 동안 집단 연습을 했다. 아산면 용장마을의 제실과 상하면 장호마을에서 합숙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게 된 것이다.”¹⁹⁾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집단 연습은 연행자들이 연행기량을 갈고 닦는 것뿐 아니라 고창 지역의 농악이 ‘고창농악’으로서 틀을 갖추는 과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2. ‘대 학생 연행주체’의 합류와 ‘고창농악’의 성립

‘고창농악단’은 1985년 결성 이후에 오거리당산제나 ‘동백연’과 같은 고창의 문화행사에서 연행을 하였고 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연로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농악단이 창설된 1985년에는 황규언 상쇠를 비롯하여 정창환, 유만중, 강대홍은 이미 환갑을 지냈었고, 수장구 정기환과 박용하도 오십 줄을 넘긴 나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고창여자고등학교에서 민속촌농악단의 정인삼을 초빙하여 농악을 가르치기도 하였으나 ‘고창농악단’의 활동을 이어 고창농악을 계승할 이들이 고창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1991년 서울에서 문예운동을 하던 이명훈 현 고창농악보존회장이 다음과 같은 계기로 고창농악의 연행에 합류하게 되었다.

내가 고창이 고향인데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마을에서 굿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도 없었어요. 여기 고수면, 고수면 예지린데,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열일곱, 아홉 가구 그런, 큰 동네는 아마 컸었던 것 같은데, 난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 전수를 가다보니까 고창에도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중략)

19) 고창농악보존회, 앞의 책, 87면.

그래가지고 문화원을 갔죠. 가 갖고 아무도 없으니까. 고창도 아는 사람도 우리 석구 외에는, 친구들 외에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문화원엘 갔더니, 혹시 이쪽에 고창에 농악이 남아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고, 이기화 원장님 만나서 여쭙봤더니 황규언 선생님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갖고 장구 하나 메고 와서 선생님 마을을 갔죠.²⁰⁾

고창군 고수면이 고향인 이명훈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민요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처음으로 농악을 접하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문예운동을 하며 여러 지역의 농악을 전수받았던 그녀는 호남우도지역에 해당하는 고창에도 농악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1991년에 고창문화원을 방문하였고, 문화원의 소개로 황규언 상쇠를 만나게 되었다. 이명훈은 그해 서울과 고창을 오가면서 고창농악을 배우고 공연하였는데, 그때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때는 단체에 있었으니까 하고, 아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인자 동백연인가 뭔가 고창에서 선운사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공연을 해야 되니까 와서 장구를 치라고 연락이 왔어요. 장구 치러 내려오라고. 갖고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진짜. 갔더니 뭐 할아버지들이 한 삼십 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 하나도 없고, (중략) 글고 전국에서 돌아다녀도 몇 군데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잘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없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진짜. 근데 전혀 발굴이 안 된, 진짜 오롯이 어른들만 모여가지고, 이게 뭐 일인데, 세상에. 진짜 굿의 신천지를 만난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중략)

그때 ‘여섯시 내 고향인가 91년도 그 겨울에 상하면 장호마을에서 또 뭐 취재를 한다고 1일 리포터를 하라고 내려오래요. 그래 갔어. 그때도 재밌게 진짜 마을에서 굿을 처음 쳐봤어요. 선생님 마을에서도 쳤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갖고 그 촬영 하고, 당산굿도 치고 매굿도 치고, 판굿도 치고, 되게 또 신선한 경험이었죠.

위 인용에서처럼 이명훈은 ‘고창농악단’을 따라 공연하면서 고창 지역의 당산굿, 매굿, 판굿을 알아갔다. 이런 경험은 그녀에게는 ‘굿의 신천지를 만난 느

20)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장 면담자료, 2012년 9월 4일, 고창농악전수관. 이후에 인용되는 구술은 모두 이 면담자료임을 밝혀둔다.

김'이었고, '고창농악단'과 그들의 연행지식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를 키운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시 이명훈과 교류가 있었던 연세대 풍물패인 '떼'의 구성원들과 함께 1993년 황규언 상쇠의 마을인 성송면 양사동의 제각에서 전수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고창농악의 대학생 전수가 처음 시작된 것이었다. 그 이후로는 고창농악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대학생들이 점차 늘어났고, 『고창농악』²¹⁾에 나와 있는 바대로 여름과 겨울의 방학을 맞아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과 일반인 단체가 고창농악을 전수받게 되었다.

이명훈은 문예운동가로서의 서울 생활을 접고 고창으로 돌아와 1993년 전북대 한국음악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음악과에 재학 중에도 황규언 상쇠의 대학생 전수를 도우면서 고창농악을 사사하였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97년도에 내가 졸업을 하고, 그 뒤부터 뭐였냐면, 97년도에 졸업을 하고 국악당의 농악 강사로 왔는데 어렴풋한 나의 생각에 아이들 데리고 전수 온 것도 그렇고 후배들이 계속 전수 와가지고 방학 때마다 내려오고 같이 전수 도와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랬던 친구들이거든요, 지금 재연이랑 성준이, 형오도 그때 그랬고, 이 친구들이. 갖고 뭘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나 혼자 할 일이 아냐. 혼자 할 수가 없어. 사람은 같이 해야 돼. 같이 배워야 되고, 일도 같이 해야 되지.' 자꾸 애들 같이 한 거죠.

이명훈은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는 고창농악을 고스란히 잘 이어가는 일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고창농악을 전수받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대학생들을 농악의 전수와 기록 작업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통해서 고창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고창농악단'에 1997년 경 여러 명의 대학교 풍물패 출신의 연행자들이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고창농악의 연행주체들이 작고하거나 연로하여 활동을 중단하게 되자 이명훈을 비롯한 이들 '대학생 연행주체'들이 고창농악보존회의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21) 고창농악보존회, 앞의 책, 500-504면 참조.

4. 연행 주체 변화에 따른 효과와 의미

4.1. '고창농악'의 집대성

이명훈과 대학 풍물패 출신 연행자들이 합류함으로써 고창농악은 세대 간의 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뿐 아니라 외부 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행주체 스스로에 의해 고창농악이 기록되고 해석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 농악의 연행주체들은 농민과 세습무계 출신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고 신분 면에서도 사회의 기층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과 활동에 대해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에 의해 농악인들이 홀대를 받기도 하였고, 농악인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공연지식과 의미들이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학생 연행주체'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이들은 고창농악의 연행주체이자 고창농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언하는 담론주체가 되었다.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 96년 3월에 처음으로 문굿을 재현했어요. 왜 했냐면 어른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옛날에 누가 잘 했고, 누가 뭘 잘했고, 문굿이 있었고 풍장굿이 있었고, 문굿을 보면 굿은 다 본 거다, 문굿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내가 알간디, 모르지. 직접 해봐야지. 선생님 그문 문굿 한번 하시게요. (중략) 그때 인제 김민현 회장님이라고 돌아가신, 그때 국악협회 부회장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 마을에서 하자고, 그래서 어른들 모여서 연습하고 문굿을 처음으로 재현을 했죠. (중략) 문굿은 또 계속 안 해봤던 거고, 그게 거의 사라지고 이런 거여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가락보 얇은 거 하나 만들고, 팜플렛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서 그 가락보를 삼천 원인가 주고 팔았던거.

대학생 연행주체들은 농악의 실기를 사사하고 연습하면서 고창농악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데에도 열성을 기울였다. 이들은 고창농악의 역사, 연행 내용과 특징 등을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중단되었던 문굿, 풍장굿, 도둑잰이굿 등을 복원하여 고창농악을 집대성하였다.

고창농악보존회에서 전승하는 농악이 황규언 선생의 예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농악은 아니다. 처음 고창농악단을 창설할 당시 고창지역의 각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악 연행자들이 결합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농악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승이 중단된 문굿과 풍장굿, 도둑잡이굿 등의 경우 보존회 원로회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각각 2~3회의 재현 공연을 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전반의 과정에서 정립된 고창농악을 정리하도록 한다.²²⁾

이들은 황규언 상쇠의 판제와 ‘고창농악단’의 연행지식을 중심으로 고창농악을 정립하면서 동시에 ‘고창농악’으로 수렴될 수는 없지만 고창지역에서 연행되고 있거나 기억되고 있는 각 마을굿을 조사, 기록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²³⁾ 또한 1998년 고창농악보존회가 발족하고 이 보존회가 2000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7-6호 고창농악 보유단체로 지정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의 이런 노력은 『고창의 마을굿1』(2000), 『고창농악』(2009), 『고창의 마을굿1』(2010), 『고창농악을 지켜온 사람들의 삶과 예술세계』(2010) 등의 서적으로 발행되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4.2. 고창지역 농악 교육의 활성화

대학과 문예운동 단체에서 농악을 전수했던 이들의 경험은 고창농악 교육에서도 주효하였다. 농악은 이전까지는 어깨 너머로, 혹은 그냥 보고 배웠다고 하는 행위 전승 중심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대학생 연행주체들은 전수활동을 통해 공연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기 시작했다.

문예활동가였던 이명훈은 여러 지역의 농악을 전수받고, 또 대학생들에게 전수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황규언 상쇠와 ‘고창농악단’ 회원들의 조교 역할을 하며 연로한 어른들과 대학생 간의 소통의 어려움을 중재했다. 그리고 가락을 녹음하고 전수 방법을 고민하는 등 고창농악의 지속

22) 고창농악보존회, 앞의 책, 112면.

23) “그리고 뭐냐면 지금은 내가 정리를 못 하겠지만 무조건 인터뷰를 다녀야 돼, 마을. 마을굿 조사해야 되고 우리 보존회 어른들 중심으로 그 마을을 가서 저녁마다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고 와가지고 새벽까지 풀고 네 명이 선생님 뒷방에 살면서, 그리고 또 낮에는 애들 가르키는 거 또 하고. 그렇게 겨울을 살았어요. 98년, 98년 그 정도.”(이명훈 구술)

적인 교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근데 인제 옛날 어르신들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또박또박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후르륵 치고 해보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가락을, 녹음하고 뭐 하고 했는데 인제, 그렇게 해서 압튼 설장고 가락을 배웠어요.

선생님 마을에 가면은 박용하 선생님도 오시고 유만중 선생님도 오시고, 애들이 와서 배우면은 신기하니까 옆에 와서 한 마디씩 해주고, 옛날 얘기 해주고, 이렇게 전수를 시작을 했고.

이들은 농악 가락을 채보하여 농악의 악보에 해당하는 가락보를 만들었다. 이 가락보는 농악의 음악에 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교재가 되었다. 가락보가 만들어지면서, 무턱대고 교수자를 따라 쳐야만 했던 전통적인 전수 방식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인 농악 교육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또한 각 읍면 농악단의 교육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고창지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악 교육에도 기여하였다. 고창의 14개 읍면에 농악단이 설립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2001년도에 14개면 농악단이 다 조직이 됐어요. 왜 조직이 됐냐면 전라북도 도민체전을 고창에서 처음으로 공설운동장을 지어가지고 고창에서 했어요. 그때 군수님이 식전공연으로 농악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예요. 500명을 꾸려라. (조사자 : 어떻게, 농악의 가치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분은 좀 좋아하셨나 어쨌나, 체육을 좋아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5백 명을 꾸리라는 거예요. 근게 각 14개 읍면 농악단을 다 꾸리라는 거예요. 도민체전이 10월 달인데 봄에, 근데 칠 줄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못 치는 사람들. 그래 삼사십 명씩 다 구해, 면마다. 그걸 누가 가르켜요. 우리가 가서 가르키죠. (중략) 그때는 나 재연이, 성준이, 형오. 한 네 명. 네 명 정도. 그니까 저녁마다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2001년 고창에서 전라북도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고창군수는 그

식전공연으로 500명의 대규모 농악 공연을 제안하였다. 이 때문에 2001년 봄에 각 읍면에 삼십삼 명 규모의 농악단이 조직이 되었는데, 농악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고창농악 강사로 활동하고 있던 이명훈과 ‘대학생 연행주체’들은 고창군과 각 읍면 자치센터의 행정력을 지원 받으며 이 농악단들을 지도하였고 10월 달의 도민체전 공연을 무사히 치러냈다.²⁴⁾ 이를 계기로 고창의 모든 읍면에 농악단이 조직되어 고창농악 인구가 짧은 시간 내에 급증하였고, 읍면 대항 고창농악경연대회도 활성화 될 수 있었다.²⁵⁾

도민체전을 계기로 그 전까지는 정읍농악을 배워왔던 농악단이 판제를 고창농악으로 바꾸었으며, 이로써 고창농악보존회는 고창 읍면 농악단들과 더 긴밀하게 연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대규모의 농악 공연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고창지역 농악의 현장에서 ‘대학생 연행주체’들의 입지가 더 크고 공고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4.3. ‘굿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실천

이들 ‘대학생 연행주체’들은 이후 고창농악전수관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고창농악의 공연, 교육, 행정 등 고창농악 전승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이들은 전수활동을 통해 공동체적인 ‘굿문화’를 강조하고, 또 이를 대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전수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였다.

전수관 강사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나 연주 활동을 할 때에도 이 말(‘굿’이라는 말-인용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정기발표회나 공연명

24) “그 15분짜리 작품을 짜서, 큰 작품을 딱 짜놓고 저녁마다 가서 가르치고 나중에는 세 면씩 합쳐서 연습하고, 근데 이거는 행정의 도움이 없었으면 안 되죠.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 모든 실과장들, 면장들, 그 밑에 이하 직원들이 사람들 저녁마다 태우러 오고. (조사자 : 예산도 지원이 됐어요?) 그럼요. (조사자 : 물질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이 그때 확 ?) 예(조사자 : 양적으로 팽창하게 만들었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때 엄청 울면서 가르쳤어요. 너무 힘들어가 지고.(중략)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10월 25일 도민체전 공설운동장에 5백명 공연을 했어요. 어마어마했죠.”(이명훈 구술)

25) “그래서 그 해는 농악경연대회를 안 하고 2002년부터 다시 2회 농악경연대회를 했는데, 14개 읍면동 농악단이 다 참가한 거죠. (중략) 첫 해는 일곱 팀인가 나왔었거든요. 2000년도, 그때 보니까 성내는 정읍 농악 하고 있었고, 대산, 이쪽 해리, 또 어디 어디. 인제 우리 꿈은 그때는 그랬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늘려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2001년도에 한꺼번에 생기기 된 계기가 됐죠.”(이명훈 구술)

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강사들 모습을 보고 배우는 학생들도
곳이란 말을 사용할 때가 많다.²⁶⁾

전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뒤풀이 문화다. 매일밤
연습이 끝난 후에 평가시간을 가지고, 다음날 연습에 오늘의 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중략)

고창에서는 매일밤의 뒤풀이에 더해, 전수 첫날에 앞풀이, 주 가운데날 밤을
중풀이, 발표회를 마친 후에 하는 최후의 뒤풀이를 성대하게 행하는 것이 관습
으로 되어 있다.(중략) 이러한 뒤풀이 문화는 개개인이 느끼는 연습의 고단함을
공동체의 모임에서 표출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의 경험의 폭을 늘려
나가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²⁷⁾

이처럼 이들은 ‘굿’이라는 호명을 통해 농악이 내포하고 있는 공동체성을
지속적으로 발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농악 기능의 학습과 연습이 핵심 목표가
되는 전수활동에서도, 어찌 보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뒤풀이 문화를 적
극 활용한다. 뒤풀이에서의 음주가 농악 기능 연습에 미치는 해악보다도, 뒤
풀이를 통해 공유하게 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일체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경험을 강조하는 이런 태도는 경쟁적이고 예능 중심
적인 경연대회에서조차 나타났다. 20-30분 정도로 정해진 시간에 농악의 기
량을 일사분란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경연대회에서는 동선과 동작과 가락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준비한다. 상황에 따른 농악의 즉흥성이 깎 수 있는 여지
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농악경연대회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평가되는 기량 중
심의 연행이기 때문에 구성원 중에서는 연행 기능의 우열에 따라 그 판에서
배제되는 이가 생기기도 한다. 설령 그 판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였는가는 중요하지 않게 취급된다. 따라서 농악경연대
회는 고창농악의 주체들이 지향하는 ‘굿문화’와는 배치되는 부분이 크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경연대회의 참가를 결정한 고창농악의 주체들은 “굿문화와

26) 가미노치에(神野知惠), 『학생풍물패와 전수관 교육, 그리고 경연대회에서 보이는 ‘굿’문화의
전승과 재창조』, 『젊은 농악연구자들의 학술구판』 발표자료집, 2012, 79면.

27) 위의 글, 83면.

경연대회 문화, 그 두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단축해 가는 것인가라는 과제에 대해 많은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준비 기간 동안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축적한 집단의 경험과 감정을 표출하면서, 현장의 관객들과 소통하는 것을 경연대회의 목표로 삼았다. 28)

경연대회에서조차 ‘굿문화를 계승하고자 했던 이들의 진지한 고민은 대회가 끝난 후 벌어진 ‘뒷곳’에서 경연대회 농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단초를 확인하였다. 결과 발표가 난 후 대회장 바깥에서는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뒷곳’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순위를 떠나 “준비기간 사이에 함께 겪어왔던 고생과 즐거움, 대회판과 굿의 미학의 괴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시간, 그것을 최대한으로 표현해냈다는 만족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뒷곳이었다.”29)

농악경연대회 참여와 같은 이런 사례는, 농악을 연행자의 기량을 구현하고 이를 관객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예술로서가 아니라 현실의 삶을 고양시키는 기제로서 인식하고, 이를 ‘굿문화’로서 지속시키고 계승하려는 고창농악 주체들의 실천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와 같이 1980년대 이후 고창농악의 연행주체의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하였다.

행위전승과 구비전승으로만 전해지던 농악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문자로 기록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학문의 체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의 조사와 연구, ‘풍물굿운동’의 실천, 사물놀이의 확산과 대중적 수용이라는 현상이 농악의 공연, 연구, 교육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1980년대 농악을 둘러싼 이런 형세는 “민중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은 대학 동아리 출신의 전문적인 농악연행자들”인 “대학생 연행주체”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고창농악을 중심으로 농악 전승에서

28) 위의 글, 84-85면 참조.

29) 위의 글, 85면.

의 ‘대학생 연행주체’들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고창은 근대 이전 영광, 장성, 함평과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영무장 지역’에 포함되었다.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농악을 통칭하여 영무장 농악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고창농악의 뿌리라 할 수 있다. 농악은 농민문화를 기반으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연행 주체 또한 농민들이 많지만, 영무장농악을 포함한 호남우도농악에서는 세습무계 출신의 명인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고창에서는 박성근과 같은 양인 출신의 전문 농악인과 김만식·신두억 등 세습무계 출신의 명인이 알려져 있다. 또한 경제력을 쥐고 있으면서 농악인들과 이들의 연행을 후원했던, 유학자이자 지주였던 정방규와 같은 후원자가 고창농악의 전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고창에서는 농민, 세습무계 예인, 농민 출신 예인들이 전통적인 농악 연행주체로서 활동하였고, 지주로서 이들을 후원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는 고창 각 지역의 농악인들이 소집되어 ‘고창농악단’이 결성되면서 황규언 상쇠의 판제를 중심으로 하는 ‘고창농악’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고창농악단은 1985년 결성 이후에 고창에서 행해지는 각종 문화행사에서 공연활동을 하였고 농악경연대회도 출전하였다. 그러나 고창농악단의 주요 구성원들이 환갑을 넘긴 연로한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계승할 인물들을 재생산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고창 출신으로서 당시 서울에서 문예운동을 하던 이명훈 현 고창농악보존회장이 고창농악단에 합류하게 된 이후로 고창농악의 연행주체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문예운동을 하며 여러 지역의 농악을 전수받았던 이명훈은 호남우도지역에 해당하는 고창의 농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이명훈은 황규언 상쇠와 고창농악단 구성원들로부터 고창농악을 사사하면서 고창농악을 연행하였다. 한편으로 대학 동아리와 연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가 진행되었고, 이명훈은 문예활동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창농악의 전수활동을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대학 동아리 출신의 고창농악 연행자들이 이명훈과 합류하여 현재까지 고창농악보존회의 중심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훈을 비롯한 대학 동아리 출신 연행주체들이 합류하면서 고창농악은 세대 간의 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들은 연행주체이면서 동시에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의 수혜를 입은 이들로써 고창농악의 의미와 가치를

발언할 수 있는 담론 주체가 되었다. 이들은 고창농악의 역사, 연행내용, 특징 등을 정리 기록하였고 중단되었던 굿내용들을 연행으로써 복원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고창농악을 집대성하였다.

또한 연로한 고창농악단원의 조교 역할을 하면서 가락보를 제작하는 등 전수활동의 체계화에 힘썼다. 이러한 이들의 노력과 고창농악에 대한 전수생들의 관심이 더해져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가 활발해질 수 있었다. 여기에 전북도민체전을 계기로 자치단체에서 읍면 농악단의 육성을 요구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고창농악은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다. 동시에 대학 졸업 후에 고창농악전수관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읍면 농악단의 육성에 기여했던 대학 출신 연행주체들의 입지 또한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 출신 연행주체들은 공연이나 전수활동 속에서 ‘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굿문화’의 긍정성을 현실의 삶에서 구현하고자 한다. 전수활동 속에서 공동체적 일체감과 농악의 현장감을 경험하도록 한다거나 경연대회 농악에서조차 ‘굿’적인 의미를 지향하는 모습이 바로 굿문화의 창조적인 계승을 위한 실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고창농악의 공연, 교육, 행정 등 현재 고창농악 전승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현재진행형이다. 변화하는 농악 전승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혹은 농악 전승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시된다.

〈참고문헌〉

1. 자료

-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장 면담자료, 2012년 9월 4일, 고창농악전수관.
『고창의 마을굿1』, 고창문화원, 2000.
『고창문화원 40년사』, 고창문화원, 2004.
고창농악보존회, 『고창농악』, 나무한그루, 2009.
고창농악보존회 엮음, 『고창의 마을굿』, 나무한그루, 2010.
고창농악보존회 엮음, 『고창농악을 지켜온 사람들의 삶과 예술세계』, 나무한
그루, 2010.

2. 논저

- 가미노치에(神野知惠), 「학생풍물패와 전수관 교육, 그리고 경연대회에서 보이는 ‘굿’문화의 전승과 재창조」, 『젊은 농악연구자들의 학술굿판』 발표자료집, 2012.
권은영, 「20세기 풍물굿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 논문, 2008.
_____, 「고창오거리당산제의 복원 과정과 민속학적 가치」, 『국어문학』 54집, 국어문학회, 2013.
김정현, 「호남좌도농악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 논문, 2008.

【국문초록】

행위전승과 구비전승으로만 전해지던 농악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문자로 기록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학문의 체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의 조사와 연구, ‘풍물굿운동’의 실천, 사물놀이의 확산과 대중적 수용이라는 현상이 농악의 공연, 연구, 교육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1980년대 농악을 둘러싼 이런 형세는 “민중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은 대학 동아리 출신의 전문적인 농악연행자들인 ‘대학생 연행주체’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농악 전승에서의 ‘대학생 연행주체’들의 역할과 의미를 고창농악을 중심으로 논의해보았다.

1980년대 이전 고창에서는 농민, 세습무계 예인, 농민 출신 예인들이 전통적인 농악 연행주체로서 활동하였고, 지주로서 이들을 후원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고창 각 지역의 농악인들이 소집되어 ‘고창농악단’이 결성되면서 황규언 상쇠의 관제를 중심으로 하는 ‘고창농악’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다 1990년대에 ‘대학생 연행주체’들이 합류하면서 고창농악은 세대 간의 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대학생 연행주체’들은 농악의 연행주체이면서 동시에 고창농악의 의미와 가치를 발인할 수 있는 담론 주체가 되어 고창농악의 역사, 연행내용, 특징 등을 정리 기록하였고 중단되었던 농악을 복원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고창농악을 집대성하였다. 또한 전수활동의 체계화에 힘쓰고 각 읍면 농악단의 육성에 기여함으로써 고창의 농악계에서 입지를 강화하였다.

이들은 공연이나 전수활동 속에서 ‘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굿문화’의 긍정성을 현실의 삶에서 구현하고자 한다. 전수활동 속에서 공동체적 일체감과 농악의 현장감을 경험하도록 한다거나 경연대회 농악에서조차 ‘굿’적인 의미를 지향하는 모습이 바로 굿문화의 창조적인 계승을 위한 실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대학생 연행주체’들은 현재 고창농악 전승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

며, 변화하는 농악 전승 환경에 대응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지향에 맞는 농악의 전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제어 : 고창농악, 연행주체, 민중문화운동, 풍물굿운동, 굿문화, 농악의 전승

【Abstracts】

A Study on the Performers of Gochang-Nongak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al Music of Farmers) since the 1980s

Kweon, Eunyeong

Nongak, which had been passed down as activity inheritance and oral inheritance, began to be recorded in writing only from the 1960s; and, from the 1980s, it has been actively studied in the academic system. Also during the 1980s, research and studies on Nongak from a nationalistic perspective, the practice of the “Pungmulgut movement”, and the distribution and popular acceptance of Samulnori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appeared in the performances, studies, and education of Nongak; however, such circumstances around Nongak during the 1980s were related to the emergence of college students as performers who were professional performances from a college club which had been influenced by the “popular cultural movement”. Therefore the study discussed the role and meaning of “college students as performers” in the inheritance of Nongak focusing on Gochang-Nongak.

Prior to the 1980s, farmers, shamanistic entertainers who inherited, and entertainers who were previously farmers were active as performers of traditional Nongak, and there were their sponsors as landowners. Also during the 1980s, since Nongak people of each region in Gochang were

called for, the “Gochang Nongak group” was formed. “Gochang-Nongak” came to take shape centering on Panje of Hwang Gyu-eon, a leading gong-player. Meanwhile during the 1990s, as “college students as performers” joined the group, Gochang-Nongak faced a natural generational change in inheritance.

“College students as performers” were the performers of Nongak and at the same time they became the subjects of discourse who are able to mention the meaning and value of Gochang-Nongak. As a result, they summarized and recorded the history, the details of performan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Gochang-Nongak; and they restored Nongak, which had been interrupted, and prepared it as a document thereby compiled Gochang-Nongak. In addition they made an effort in systemizing an inheritance activity and contributing to the cultivation of the Nongak group of each eup and myeon; thus they reinforced the position in the Nongak circles of Gochang.

While using the term “Gut” in the performance or inheritance activity, they were to realize the positive aspect of “Gut-culture” implied in this term in real life. In the inheritance activity, the appearance of having people experience the sense of communal unity and the live feeling of Nongak or of aspiring to the meaning of “Gut” style even in competition Nongak may be the cases of practice for the creative inheritance of Gut-culture.

The “college students as performers” are responsible currently for the overall inheritance of Gochang-Nongak, and they are not only coping with a changing Nongak inheritance environment but also striving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the inheritance of Nongak that matches their aspirations.

Key words : Gochang-Nongak, performers, popular cultural movement, Pungmulgut movement, Gut-culture, inheritance of Nongak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7월 26일에 심사 완료
되어 2013년 8월 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